



리우 3인방 유쾌한 훈련 리우올림픽에 출전하는 축구대표팀 권창훈(왼쪽부터), 손흥민, 류승우가 3일(현지시간) 오후 브라질 사우바도르 피투아투 경기장에서 조별리그 1차전 피지와의 경기를 하루 앞두고 열린 훈련에서 몸을 풀고 있다. /연합뉴스

신태용호, 세트피스로 피지 골문 연다

철벽수비 뚫기 중점 훈련

다득점 위해 10여개 준비

원발 키키로 권창훈·문창진

2회 연속 메달에 도전하는 신태용호가 첫 상대인 피지에서 다득점을 뽑아내기 위한 해법으로 세트피스 훈련에 주력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 축구 대표팀은 4일(이하 한국시간) 브라질 사우바도르 피투아투 경기장에서 열린 마지막 훈련에서 세트피스를 중점적으로 연습했다. 객관적으로 전력이 열세인 피지가 수비

위주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코너킥이나 프리킥 등 세트피스는 한국이 확실하게 구사해야 할 공격 방법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대표팀은 전날 훈련에서 세트피스를 연습한 데 이어 1차전을 앞둔 마지막 훈련에서도 세트피스 연습을 반복했다. 대표팀은 올림픽 본선에 대비해 10여개의 세트피스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원발 키키가 필요할 경우엔 권창훈(수원)이나 문창진(포항)이 나선다. 권창훈과 문창진 모두 K리그의 '차세대 원발'로 꼽힐 정도로 킥의 정확성이 좋아서 세트피스 상황에서 번갈아가며 킥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오른발 킥은 손흥민(토트넘)이 담당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오른발의 정확성이 높은 이창민(제주)도 키키로 나설 수 있다. 신태용 감독은 훈련에 앞서 실시된 기자회견에서 피지가 수비 위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신태용 감독은 "피지가 수비진을 내린 상태에서 경기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피지가 수비 위주로 나온다면 선제공격을 빨리 넣어 좋은 경기내용을 보이고 다득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피지와는 1차전에 선발 출전할 베스트 11 중에선 황희찬(울산)이 최전방 공격수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최전방 자

원인 석현준(FC포르트)이 부상에서 회복했지만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데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2선 공격수로는 문창진(포항)이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서고 좌우 날개에는 류승우(레버쿠젠)와 권창훈(수원)이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수비형 미드필더로는 박용우(서울)와 이찬동(광주)이 유력하다. 포백(4-back) 자리에는 심상민(서울 이랜드), 최규백(전북), 장현수(광주), 이슬찬(전남)이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골키퍼 장갑은 김동준(성남)이 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표팀에 합류한 손흥민은 후반 교체 투입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야구, 2020년 도쿄올림픽서 복귀

5개 종목 추가...클라이밍 채택 '암벽 여제' 김자인 청신호

야구가 12년 만에 올림픽 무대에 복귀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3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원저 오세아니아 호텔에서 제129차 총회를 열고 야구-소프트볼과 서핑, 스케이팅보드, 클라이밍, 가라데 등 5개 종목을 2020년 도쿄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했다. IOC는 또 이날 총회에 참석한 위원 85명 만장일치로 2020년 도쿄 올림픽에 한

해 정식 종목을 33개로 늘리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올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정식 종목은 28개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이 된 야구는 2008년 베이징 대회를 끝으로 올림픽 무대에서 사라졌다. 2012년과 2016년 올림픽에서는 열리지 않았으며 2008년 베이징 대회 이후 12년 만에 다시 올림픽에 복귀했다. 한국은 2008년 베이징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지난해 9월 IOC에 이들 5개 종목을 정식 종목 후보로 추천했으며 IOC는 올해 6월 집행위원회를 통해 5개 종목의 2020년 대회 정식 종목 채택 안건을 승인했다. 야구와 가라데는 개최국인 일본에서 인기가 높은 종목이고, 서핑과 스케이팅보드, 클라이밍은 젊은 세대가 즐겨하는 스포츠다. 야구를 제외한 다른 종목은 모두 올림픽에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도쿄올림픽에서 야구는 6개국 이 출전해 메달을 다투게 된다. 개최국 일본이 한 자리를 가져가면 남은 본선 티켓은 5장에 불과해 2008년 베이징 대회에서 우승한 한국도 출전을 장담할 수

는 없다. 그러나 2008년 금메달을 발판으로 국내 프로야구 인기가 급등한 바 있는 데다 주요 선수들의 병역 혜택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야구의 올림픽 정식 종목 복귀는 국내 야구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에는 클라이밍의 정식 종목 채택도 반갑다. 클라이밍의 올림픽 입성으로 도쿄올림픽 금메달 후보로 떠오른 김자인은 "좋은 결과가 나와 굉장히 기쁘다"며 "올림픽은 모든 스포츠인에게 꿈의 무대인데, 그 무대를 밟을 기회가 생겼다. 하지만 4년 뒤엔 한국 나이가 33세가 된다. 클라이밍을 하기에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니다. 몸 관리를 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KIA 선수들 여름 극복 해법 '무게 줄이고 힘 빼고'

노수광 방망이 20g 가볍게 김호령, 힘 조절로 체력 배분 나지완 "고기로 몸보신" 힘겨운 여름을 버티기 위해 '줄이고 빼고'. 방망이 무게는 줄이고 힘은 뺐신 에 외야수들이다. KIA 타이거즈는 4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와의 경기에서 라인업에 변화를 줬다. 김호령을 9번으로 배치하고 대신 노수광을 투타자로 해 오준혁과 테이블세터를 이루게 했다. 1회부터 적극적인 공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최근 타석에서 끈질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노수광을 앞에 세우고 페이스가 떨어진 김호령을 뒤에 배치한 것이다. 공격의 시작과 끝을 장식한 두 선수는 KIA를 움직이는 새로운 힘이다. 감독이 인정하는 '강철 체력'을 보유한 두 사람이지만 1군 무대에서 풀타임으로 처음 소화하는 여름인 만큼 두 선수도 체력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생존을 위해 1번 타자 노수광은 방망이 무게를 낮췄다. 4일 경기에 앞서 노수광은 "집중력이 떨어진 것 같다. 이걸 이겨내야 한다"며 "오늘 방망이를 860g에서 840g로 낮춰서 칠 생각이다. 똑같이 스윙을 하는데 힘을 쓰면서 스윙하는 느낌이 들었다.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방망이도 무게를 느끼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체력적인 문제인데 자칫 밸런스가 깨지면서 기술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무게를 낮춰보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시즌 1군 생활을 해냈던 김호령은 방망이 무게가 아니라 힘을 빼고 있다. 김호령은 "지난해 나도 방망이를 860g에서 840g로 낮춰봤는데 몸이 힘들 때는 똑같이 무게를 느껴졌다(웃음). 1년 경험을 하면서 힘을 빼는 것을 조금 알게 됐다. 지난해에는 무조건 100%로 했는데 훈련을 할 때 힘 조절을 하면서 체력을 배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문난 '훈련 벨레' 노수광도 훈련량을 줄이는 것으로 경기 체력을 준비하고 있다. 노수광은 "코칭스태프에서도 경기 전에 훈련을 조금만 하라고 말씀하신다. 훈련을 조금 줄이면서 경기에 대비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 모두 특별히 챙겨 먹는 보양식은 없다. 밥이 보약이라는 두 사람이

광주서 대학야구 최강팀 가린다

내일 '대통령기 대회' 개막 '야구 메카' 광주에서 대학야구 최강팀을 가린다. 제50회 대통령기 전국대학야구대회가 오는 6일 광주 무등야구장에서 개막한다. 이번 대회에는 지난 대회 우승팀인 성균관대를 비롯해 춘계리그 우승팀 경성대, 대학선수권 우승팀 동국대, 하계리그 우승팀 홍익대 등 31개교가 참가해 우승을 향한 치열한 접전을 벌인다. 대회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개막전은 6일 오전 9시30분 무등야구장에서 세계사이버대와 세한대의 대결로 치러진다. '디펜딩 챔피언' 성균관대는 8일 서남대를 상대로 대회 첫 승리에 도전한다. 광주를 대표하는 송원대(감독 고천주)와 동강대(감독 홍현우)는 8일 각각 경희

광주체중 안산, 문체부장관기 양궁 6관왕

안산(여·16·광주체육 3년·사진)이 무려 6개의 금빛 과녁을 명중시키며 '6관왕'에 올랐다. 국내 양궁대회에서 6관왕을 차지한 선수는 안산이 최초라는 게 체육회 설명이다. 안산은 지난 2일까지 경북 예천양궁장에서 열린 '제 42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

광덕중, 전국 중등축구대회 우승컵

프로축구 광주FC U-15 광덕중이 전국 중등축구대회 우승컵을 차지했다. 광덕중은 지난 2일 충남 예산에서 끝난 '2016 예산사과기 전국중등축구대회'(저학년부)에서 우승을 거뒀다. 예선전을 2승1무(조 1위)로 마치며 16강에 진출한 광덕중은 우승 행보를 시작했다. 결승전은 프로 산하팀인 고양자이크로 U-15와의 대결로 전개됐다. 광주FC U-15 광덕중은 전반 20분 만에 실점했으나 1

광주체중 안산, 문체부장관기 양궁 6관왕

안산(여·16·광주체육 3년·사진)이 무려 6개의 금빛 과녁을 명중시키며 '6관왕'에 올랐다. 국내 양궁대회에서 6관왕을 차지한 선수는 안산이 최초라는 게 체육회 설명이다. 안산은 지난 2일까지 경북 예천양궁장에서 열린 '제 42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

아름다운 추억이 머무는 곳

자연이 아름답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더 아름답습니다. 백양관광호텔로 오십시오.

Beautiful Baeg Yang Hotel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의식사업부
- 교회 행사 전문 호텔

http://www.baegyanghotel.co.kr/ | 예약 및 문의 | 061-392-2114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 대형 웨딩홀 준공

◆ 400석 대연회장 신축

- 대규모 기업행사(세미나/워크숍/기업연수)
- 결혼식/피로연/고회연
- 각종 모임(가족모임/동창모임/각종단체모임 등)

◆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